

광야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성경본문 <신명기 8장 1절 ~ 10절>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10]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앞에서, 40여년의 광야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40여년동안 벌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40여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기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빛어지기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이고, **말씀**을 뜻하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와 광야생활을 통한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이끄신 이유가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확인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도 사용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때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의 삶과 일상에서의 만남,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배경이자 재료가 된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복적인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던지셨다고 생각된다면, 그곳이 우리의 삶을 연단하는 광야이고, 동시에 광야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는 곳은 심판과 정죄의 자리만이 아니라, 훈련과 인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 광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과 징계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벌하시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며, 순종으로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찬란하게 빛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